

기획예산처
물류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방침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위주의 투자뿐 아니라 물류 기업육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S/W 측면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도 예산안에 물류전문대학원 개설지원 20억원,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4억원, 종합물류기업육성지원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글로벌 생산·판매시스템 확산으로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서 물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고급 물류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국제물류상의 수송관리, 화물추적 정보 제공,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의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해졌다.

현재 국내 물류교육은 산업대학원·유통대학원·국제통상대학원에서 강의 중심의 학술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중심의 실무형 고급 인재양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6년부터 향후 5년동안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물류산업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향후 5년동안 매년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화주의 물류 전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제3자 물류전문기업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물류기업들은 단순 운송회사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화주기업(제조·유통업)이 자가물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물류업무는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생산·판매에 역량을 집중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류기업의 대형화·종합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시행 및 물류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2006년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키로
 저온창고, 선별장, 컨테이너도크 등 갖춰

지역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건립된다.

경상북도는 도비 8억4천5백만원 등 16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경북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내년 1월 착공해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가 출자한 경북통상(주)이 사업을 맡고 경산시가 주관하는 수출물류센터는 대지 2천평에 저온창고(4백평), 선별장(4백평), 컨테이너도크 등을 갖추게 된다.

수출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전문적인 일관처리 물류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나 바이어가 원하는 고

정책기관

부가 농산물 유통이 가능해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산물 수출은 현재 농가 또는 작목반 단위로 수집·선별·포장작업이 이뤄져 규격·품질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예냉기 등 수확 후 관리시설이 부족해 신선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영세 수출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해외 바이어가 자주 바뀌는 등 지속적 수출이 어려워 수출농가의 피해가 빈번한 실정이다.

김범연 경상북도 농산물수출팀장은 “센터가 건립되면 집하·선별·포장·검역·통관 등 일관체계가 구축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마산·부산에서 하던 물류작업도 지역에서 이뤄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8월까지 경북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은 3만4천5백69톤, 6천970만3천 달러어치로 전년보다 각각 37%, 30% 증가했다.

나라별 수출금액은 일본이 4만8천4백49t(70%)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6%), 대만(5%), 미국(4%)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 메뉴 재구성, 검색 기능 강화

환경부(장관 이재용)는 국민들에게 환경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상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를 환경포털사이트로 전면 개편했다.



▲ 환경부가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환경부 홈페이지는 1997년 오픈한 이후 부분적인 개편과 메뉴 신설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면 개편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는 지난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10월 17일 정식 오픈했다.

새로운 홈페이지의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기존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달리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전면 개편,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기존 홈페이지의 복잡하고 산만한 메뉴체계(11개의 메인 메뉴, 81개의 서브메뉴)를 찾기 쉽고 간단한 메뉴체계(6개의 메인메뉴, 48개의 서브메뉴)로 통합·재설계해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검색기능을 강화해 뉴스, 문서, 법령, 등 분야·분류별 검색 및 결과 내 검색, 인기검색어, 하이라이트기능 등을 추가했고, 환경부 본부 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재구축

한 환경부 홈페이지가 고객 지향적 환경 포털사이트로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들과 함께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자원부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방향제 ·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7종

방향제 · 순간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7종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지난 달 23일부터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자동차 유리 세정액 등 7종을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조 · 수입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품목에 대해 어린이가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 ·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화상을 입히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방향제의 경우 알코올 4% 이상 함유 또는 탄화수소 10% 이상, 세정제는 수산화나트륨(NaOH) 2%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접착제는 순간접착제와 아노아크릴레이트가 10% 이상 포함된 것, 얼룩제거제는 황산이 10% 이상 포함된 것이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이다.

석유정제물 10% 이상이 포함된 광택제, 에틸

렌글리콜 10% 이상의 부동액, 메틸알코올 4% 이상의 자동차용 세정액도 적용된다.

산자부 생활복지표준과 최형기 과장은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된 품목 외에도 제품의 사용량 · 유해성 · 사고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포장제도는 이미 미국 · 캐나다 · 영국 등에서 의무제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이 제도를 1970년에 시행했으며, 만 5세미만 어린이 1백만명당 중독사고 사망률이 1970년 12명에서 2002년 2명으로 줄어들었다.

산업자원부

2005 한국기계전

신기술 발표회 등 성황

2005 한국기계전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렸다.

5백개사 2천2백부스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기계분야 전시회로 신기술 발표의 장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 · 중소기업 협력관, 국제 FA기기 · 시스템전, 국제 용접전, 국제제어계측 · 시험검사기기전, 국제부품 · 소재 · 산업기계 · 플랜트전, 국제냉동공조기기 · 설비전, 국제금속가공기계 · 공구전, 국제유공압기기 · 펌

정책기관

프전, 국제포장기기·물류시스템전, 국제환경기술·설비전, 한국벤처산업전으로 세분화돼 열렸다.

부대행사로는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정부포상, 기계기술세미나개최, 심포지엄, 신기술발표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갖춰 놓았다가 의사의 처방이 나오지 않거나 대량포장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처분되는 약품이 도내에서도 수억원대에 달해 사회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해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약사회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2백여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의사의 처방이 나오지 않아 버려야 하는 약품은 4천76개 품목에 가격으로는 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품목은 올 2월 현재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의약품 2만5백64개 품목의 19.8%에 해당되는 규모다. 때문에 약국들은 폐기 약품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규칙을 신설해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날알모음 포장 등 소량단위의 의약품을 제조해 공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제품의 생산·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약국의 재고약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 의약품의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후 의사들이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약국에서 과다하게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도 바꿔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 개정고시 최종생분해도 표준물질 대비 90% 이상

환경부(장관 이재용)는 지난 달 11일 분해성 합성수지의 재질기준 및 분해성 합성수지의 시험기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해성 합성수지에 대한 재질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분해성 합성수지의 적용범위에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비롯, 1회용 도시락 용기와 1회용 합성수지용기가 포함돼 있다.

재질기준에는 분해성 합성수지의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최종생분해도가 표준물질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의 관련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분해성합성수지의 재질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M 3100-1이다.

한편 분해성 합성수지의 시험기관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명시되었으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지정, 공고하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

해양수산부
싱싱회 인증로고 첫 사용 허가
진공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특허청에 싱싱회 인증로고 상표를 등록한 후 지난 달 7일 국내 최초로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소재한 한국빙온(대표 장석원)과 싱싱회 브랜드 로고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싱싱회 인증로고 브랜드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활어만을 엄선하여 혈액, 껍질,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만을 분리해 살균처리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맛이 좋은 싱싱회를 브랜드화 한 것이다.

싱싱회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 위생설비를 갖추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원료는 건강한 활어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 실사를 거쳐 횡감이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아 (사)한국싱싱회 가공협회의 추천을 거쳐 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다.

이선준 수산정책국장은 “싱싱회 인증로고 사용을 계기로 싱싱회 로고 사용 질서가 확립되고 회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 수산물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싱싱회 가공공장도 협약서 체결이 예상돼 우리나라 회문화 발전에 싱싱회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PL 제도 관리방안 마련 회의 개최
중국산 검토 필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규격기준을 재질에 따라 재질 및 용출규격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는 합성수지 용기포장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하여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제도로 관리함으로써 사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식약청(청장 김정숙)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사전관리 차원에서 PL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지난 달 25일 식약청 보건복지인력개발 국제회의실에서 ‘용기포장 원

정책기관

료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 관리 이영 팀장을 비롯, 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오원석 고문, 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이근택 교수, 선문대학교 식품과학과 안덕준 교수, (주)한화석유화학 권현철 차장 등 관련 단체대표 및 교수, 업계 관계자들 13여명이 참석했다.

용기포장 전문위원들의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크게 △ PL 제도 도입시 관리 방안 △ 제외국(미국, 유럽연합) 사용예가 없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PL 제도 도입시 합성수지 각 재질별에 따라 관리하고 PL 작성 후 방대한 양의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포장협회 공재홍전무는 “국내 포장산업이 빠른속도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제품에 위협받고 있다”며 “PL 제도 도입시 포장산업이 거대해지고 있는 수출 품목인 중국제품에 대한 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오원석 고문은 “정부가 명분을 세워 포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할때마다 우리 업계는 흥쾌히 동의를 했으나 불합리적으로 손해가 막심했다”며 “PL 제도가 국민 건강을 되찾고자 시행되는 만큼 목적을 달성하고 포장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슬기롭게 제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식약청 PL 제도 관리방안 마련 회의 개최